

갈 길 바쁘는데... 바람잘 날 없는 재건축단지

흑석

조합내부 갈등, 시공사 재선정 가능성도

둔촌

'2900만원 분양가' 찬-반 대립 공사중단

서울 흑석9구역과 둔촌주공 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장이 내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반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흑석뉴타운의 흑석9구역이다. 최근 흑석9구역 조합은 기존 시공사였던 롯데건설과 조합 간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다. 흑석9구역조합과 롯데건설은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롯데건설 측은 흑석9구역 조합의 협상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 **흑석9구역 다음 달 조합장 선거 예정**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9구역은 조합장 선거를 준비 중에 있다. 이곳은



철거공사를 진행중인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연합뉴스

현재 롯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길 원하는 옛 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갈등을 겪는 중이다. 흑석9구역 조합은 아직 새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롯데건설과의 협상이 결렬해도 시공사 선정작

업은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다음 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새 시공사 선정은 조합장 선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 **둔촌주공 분양가 문제로 갈등**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역시 일반 분양가 수용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는 중이다. 조합은 오는 9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2900만원대' 일반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현 조합장 사퇴를 공식 발표한다.

조합 집행부는 HUG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사업단이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반분양가를 수용하고,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HUG의 2900만원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최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며, 차라리 후분양으로 가지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둔촌주공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총회 안건 상정·의결 금지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오는 9일로 예정된 일반분양가 확정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주요 안건으로 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무효화하겠다는 의도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사사업단이 지난 24일 조합에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2조6708억원에 달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건설, 우즈베크 친환경 정유공장 설계 수주

UNG와 72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 본격 돌입

SK건설이 우즈베크스탄 최초의 친환경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SK건설은 지난 6일 우즈베크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와 6억 달러 규모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의 설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주금액은 720만 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우즈베크스탄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SK건설과 UNG는 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지난해 4월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양국



우즈베크스탄 부하라 정유공장 전경. /SK건설

정상회담 사전행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 회담을 통해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양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계약식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FEED)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는 물론 적용가능한 세부 기술을 확인하고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산출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주요 내용들을 검토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즈베크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37km 떨어진 부하라 지역에 위치한 일산 5만 배럴 규모의 부하라 정유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중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 석유제품으로 전환시키고, 가솔린, 디젤 등의 제품 품질을 새로운 친환경 규격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상반기 증권결제대금 일평균 27조 돌파

장내 주식 일평균 결제대금 7188억

올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증권결제대금이 27조6000억원을 기록해 직전반기(24조원) 대비 15.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23.1조원) 대비 19.3% 증가한 것이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 간 주식·대금의 결제인 장내·외 주식결제대금은 1.63조원으로 직전반기(1.13조원) 대비 43.5%나 증가했고, 전년 동기(1.17조원) 대비 39.1% 늘었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와 은행 간 채권·대금의 결제인 장내·외 채권결제

대금은 26조원으로 직전반기(22.9조원) 대비 13.7% 증가했고, 전년 동기(22조원) 대비 18.3%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장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7188억원으로 직전반기(4814억원)보다 49.3% 늘었다. 거래대금은 22.4조원으로 직전반기(10.6조원) 대비 111.2% 증가했고, 차감률은 직전반기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결제대금 역시 늘었다.

장내 채권시장의 일평균 결제대금은 2.38조원으로 직전반기(1.85조원)보다 28.9% 상승했다. 거래대금은 9.23조원으로 직전반기(10.35조원) 대비 10.8% 감소했으나, 차감률이 직전반기 대비 7.9%포인트 감소함에 따라 결제대금은 증가했다. /박미경 기자 miikyung96@

2차전지 특화 믹싱장비 개발... 전기차 수요확대 수혜

IPO 간담회

티에스아이, 코스닥 이전상장

유럽 중심의 전기차향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며 수혜주로 떠오른 티에스아이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티에스아이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이전을 통해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티에스아이는 2차전지 전극 제조공정 중 믹싱 공정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믹싱공정에 특화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에 2017년 10월 상장했다. 믹싱공정은 전극 공정 중 전극활물질, 도전재, 결합제 등 용재를 섞어 슬러리 형태로 만든 후 코팅 공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을 뜻한다. 국내 배터리 3대장으로 꼽히는 LG화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티에스아이

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이들의 매출비중이 지난 1분기 기준 93.4%를 차지한다. 표인식 티에스아이 대표는 "2차전지에 특화된 차세대 믹싱 시스템을 개발해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며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했다"고 소개했다.

표 대표는 분산기술센터에 대한 자량

을 늘어놓았다. "양산용 테스트 장비를 보유했다"며 "고객에게 직접 설비 효능을 경험하게 해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전기차 판매 보조금 혜택 강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라는 정책적 기대감도 있다. 표 대표 역시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주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고객사의 추가 확대도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했다.

티에스아이는 지난해 매출액 610억원, 영업이익 5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수준이다.

티에스아이의 총공모 주식 수는 185만주다.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 수의 38.4% 수준인 356만주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9500원으로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695억~880억원이다. 6~7일 이틀간 수요예측, 오는 13~14일 청약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

'포스트 코로나' 상업시설 새기준 제시

대우건설

'아클라우드 감일' 9월 공개

대우건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화된 생활·소비 트렌드와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대형 상업시설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오는 9월 서울 송파구와 맞닿은 감일지구 중심상업용지 1BL에서 지하 1층~지상 2층 총 3만8564㎡(약 11600평) 규모의 상업시설 '아클라우드 감일'과 아파트 496가구 규모의 '감일 푸르지오'를 동시에 공개한다.

'아클라우드 감일'은 대우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상업시설 브랜드 '아클라우드'의 첫 적용 상품으로 '아클라우드'는 호(弧)를 뜻하는 'ARC'와 구름을 의미하는 '클라우드(CLOUD)'의 합성어다. '아클라우드 감일'은 온라인 소비에 지친 현대인이 휴식, 문화, 여유, 힐링과 함께 소비를 즐길 수 있도록 '패밀리(Family), 힐링(Healing), 에코(ECO)'라는 컨셉으로 설계됐다.



네덜란드 카브사(社)가 설계한 '체험형 놀이터 & 이벤트광장 조형물 '클라우드(Cloud)'. /이규성 기자 peace@

세계적인 공간기획 전문설계사인 네덜란드 CARVE(카브사(社))가 대형 체험형 놀이터, 이벤트광장과 조경을 디자인해 전체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열린 공간(오픈 에어·Open Air)으로 구성, 해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진화된 상업시설을 구현한다.

이러한 오픈 에어(Open-Air) 공간 기획으로 기존의 단순한 상업시설을 넘어서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과 함께 쉬과 휴식을 누리는 공간, 상가전용 429대의 넓은 주차장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